

■민선 5기 단체장에 듣는다

박준영 전남지사

“영산강 개발은 소신…광주 오폐수 처리와 병행 추진”

박준영 전남지사는 3선 단체장임에도 여전히 바쁘다. 지난 1일 취임식 이후 30분 단위로 스케줄을 조정해 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2일에는 장흥~제주간 페스티벌 취항식에 참석하는 등 현장을 누비고 있다.

박지사는 지난 6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5기에는 농업·농촌·농민이 모두 잘 사는 ‘3농 정책’을 추진하고 미래산업으로 전남의 먹을거리를 챙기는 한편 F1 등 국제행사를 잘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4대 강 논란도 불구하고 영산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대한 변함없는 소신도 피력했다.

-6년간 도정을 수행하면서 이룬 대표적인 성과를 세 가지만 꼽는다면.

▲우선 전남이 한번도 꿈꾸어 보지 못했던 국제행사를 유치한 것을 꼽고 싶다. 2010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2 여수 세계박람회,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등이다. 특히 한번 실패했던 여수세계박람회는 정부와 역할 분담을

확충 등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관광객 1억명 시대’를 열어가겠다. 전남을 4대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교우위 특화 자원과 연계한 생활의약, 신소재 등 미래산업을 육성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권역별 균형발전을 강조하지만 중남부권은 아직도 낙후됐다는 지적이 많다.

▲강진·장흥·보성 등 중남부권은 전남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다. 그러나 그 지역을 연구해 보면 햇볕이 많고 온화한 기후와 해조류, 한약초 등 특산물이 많이 생산된다. 이같은 자원을 적극 활용해 차세대 생활산업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반은 이미 마련했다.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버섯연구소를 설립·운영하기 시작했고 한방산업 특구 지정 등 비교우위 자산을 소득화하는데 주력하겠다.

-최근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가 논란이 일었다.

농업·농촌·농민 모두 잘 사는 ‘3농 정책’ 적극 추진

F1 등 국제대회 성공 개최…관광객 1억명 시대 열 것

통해 조직적으로 유치한 대표적 성과라 할 만하다. 모두 어렵다고 했던 친환경농업을 도민들과 협력해 전국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의 52%를 달성한 것도 성과다. 국민들도 이제 ‘친환경농업하면 전남’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화순의 백신산업, 순천의 마그네슘 등 전남의 향후 먹을거리인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민선 5기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과 정책은.

▲전남만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 2000개 기업유치와 10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200만명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 또한 친환경 유기농 확대와 수출 산업화, 행복마을 확대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의료·복지, 교육여건 개선 등의 ‘3농 정책’을 적극 추진해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겠다.

F1대회, 여수세계박람회 등 4대 국제행사 성공 개최로 한국과 전남의 위상을 높이고 다오해 섬 개발, 관광리조트 속박시설



▲ 일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친환경적 영산강 보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보듯이 나보다 친환경 정책에 애착을 가진 사람도 없을 것이다. 2004년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영산강 살리기 프로그램(2006년 선거 팸 영산강 벤길복원)’을 만들며 공약으로 내세웠고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수질개선 및 홍수예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대강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운하에 대한 우려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한국엔 운하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했다. 영산강 살리기는 운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번 선거에서 도민 3분의 2 이상이 지지한 만큼 영산강 살리기 사업도 도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나.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놓고 도민 투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은 지

난 시절 해온 일과 공약에 대한 평가와 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한가지 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영산강 살리기는 3번의 선거에서 일관되게 내세운 공약이고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도민들도 지지해준 정책이라 생각한다. 선출된 지사로서 역사에 책임질 일을 해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도 알고 있고 일지도 있다. 도청 앞 농성장에 들어 이들과 대화도 나눴다. 서로 확인한 것은 영산강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다. 단지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준설과 보수 문제, 본류 보는 샷강 살리기와 오 폐수 처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광주의 오폐수 처리다. 정부에도 여러 번 건의 했지만 이는 광주시가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나는 영산강 살리기와 광주의 오폐수 처리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산강 상류는 건천화로 물이 없고, 상하류 모두 토사가 2~3m 쌓여 있다. 준설하지 않고 보기 없으면 상류는 물이 없는 강이다. 나는 처음에 준설만 건의하고 보는 반대했으나 건천화된 상류는 준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는 민주당도, 지역의원들도 다 이해하고 있다. 더구나 영산강 권역 시군에는 시급한 문제다. 이런 사실들은 필요하면 검증하면 된다.

-영산강 살리기와 무안공항 이전 등 민선

5기 초기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광주시와의 정책 공조에는 문제가 없다.

▲ 광주와 전남은 행정구역상 분리돼 있지만 한 뿌리의 공동운명체이다. 박람회 전 시장과는 양 지역의 먼 미래를 보려고 노력해 왔고 많은 것을 이뤘다.

광역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강운태 시장이 이제 취임한 만큼 시간을 갖고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 현안 문제를 논의하겠다. 양 지역의 공동발전에 대한 시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공조해 나간다면 지역 현안들이 슬기롭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도민들에게 돌아간다. 시·도민들이 피곤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도력이라 생각한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혁신도시 조성이나 대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혁신도시 조성이나 대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로 인구 ‘200만명 재 돌파’ 발판 구축

세종시 수정안 부결 전남에 기회…기업유치 총력

▲ 세종시 수정안은 혁신도시 조성원가의 3분의 1 수준의 저렴한 토지공급과 외국인학교·병원 설립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담고 있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기업유치에 많은 차질이 예상됐다.

더구나 광주·전남은 광역사업으로

상품화, 해양 생물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등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천일염처럼 슬로시티로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있다.

▲ 광불로 취급돼 제값을 받지 못했던 천일염이 지금은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태평염전을 중심으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증도는 염전과 갯벌체험 관광객이 증가했고 소금 등 지역특산품 판매도 늘어났다.

신안 증도 등 전남의 4개 슬로시티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생태체험관광으로 발전시켜 간다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가 될 것이다.

슬로시티에 걸 맞는 숙박시설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앞으로 한국형 슬로시티 모델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느림과 여유로운 삶을 구현하는 슬로 관광산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질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률 있는 무한률을 전합니다.

근로시설/원룸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시설/상가 김관중이사 010-8033-0114

공장/토지 대표이사 010-5878-0005

기타 대표이사 010-7570-7525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에 010-804-0005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에 010-804-0005